

표준화 환자를 적용한 간호대학생의 정신간호학 실습교육 효과

박신영¹ · 권영란²

조선대학교병원 간호사¹,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조교수²

The Effect of Using Standardized Patients in Psychiatric Nursing Practical Training for Nursing College Students

Park, Shin Young¹ · Kweon, Young Ran²

¹Staff Nurse, Chosun University Hospital, Gwangju

²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Chosun University, Gwangju, Korea

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examine the effects of using standardized patients in psychiatric nursing practical training for nursing college students. **Methods:** This research design was a quasi-experimental pre-and- post-test control and experimental group methodological comparison study. Forty-four (Exp.=23, Cont.=21) nursing college students in G city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 experimental group received psychiatric nursing practical training using standardized patients, and the control group received traditional practice. Data were collected between October 1 and 15, 2011 through self-report structured questionnaires and were analyzed with the Kolmogorov-Smirnov test, χ^2 -test, Fisher's exact test, and t-test using the SPSS/WIN 17.0 program. **Results:** After the treatmen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level of motivation of transfer ($t=1.71, p=.047$), and learning self-efficacy ($t=4.70, p<.001$)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The mean score per item for learning satisfaction was 4.28. **Conclusion:** The above findings indicate that psychiatric nursing practical training using standardized patients is a useful method for practical ability. Therefore, enhancement of performance ability related to practice can be done by developing psychiatric nursing practical training programs with various cases and content.

Key Words: Standardized patient, Self-efficacy, Satisfaction, Motivation, Transfer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정신간호학 교육의 주된 목적은 간호대학생들이 정신건강 관련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일반적인 보건의료영역에서 활

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며, 나아가 다양한 정신보건영역에서 전문적인 정신간호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이다(Happell & Hayman-White, 2009). 간호대학생들의 경우 임상실습교육과정을 통하여 전문적 역할을 습득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획득하여 향후 간호사로서 변화하는 임상실무에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정신

주요어: 표준화 환자, 전이동기, 학습자기효능감, 학습만족감

Corresponding author: Kweon, Young-Ran

Department of Nursing, Chosun University, 309 Pilmun-daero, Dong-gu, Gwangju 501-759, Korea.
Tel: +82-62-230-6325, Fax: +82-62-230-6329, E-mail: yrk@chosun.ac.kr

- 이 논문은 제1저자의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축약본임.

- This article is a condensed form of the first author's master's thesis from Chosun University.

투고일 2012년 1월 13일 / 수정일 2012년 3월 10일 / 게재확정일 2012년 3월 22일

간호학 교육에 있어서 임상실습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다른 실습영역과 달리 정신간호학 실습과정 동안 학생들은 불안, 두려움, 그리고 부정적 태도를 더 빈번히 경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상자와 치료적 관계의 형성이나 정신간호학 학습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Tully, 2004). 간호대학생들이 임상실습에서 이런 어려움을 경험하는 이유로는 사회적으로 만연해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이다. Happell과 Hayman-White (2009)에 따르면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태도들이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동안 편안하게 실습에 임할 수 없도록 지속적으로 방해한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이유로는 자살시도자, 정신증, 조증, 또는 공격적 환자와 같은 사례들을 학생들이 직접 돌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Kameg, Howard, Clochesy, Mitchell, & Suresky, 2010). 이는 정신간호학에서 학습한 내용을 실제 임상에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갖도록 만든다. 즉 정신보건영역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의 경우 다양한 종류의 정신질환 대상자를 위해 자신을 치료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간호대학생들의 경우 치료적 자기이용과 같은 개념을 실제 임상상황에 적용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느낀다. 이런 사례들이 간호대학생들에게 정신간호학 실습 시 스트레스를 높이고 실무에 대한 확신이나 자기효능감을 감소시키도록 만든다(Happell & Hayman-White, 2009).

실제 많은 연구들에서 간호대학생들이 학습한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보고한다(Becker, Rose, Berg, Park, & Shatzer, 2006; Chung, 2009; Hyun & Seo, 2000).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학습한 내용을 간호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Ayres (2005)는 학습전이 모형을 활용하였다. 학습전이 이론에서는 알고 있으면서도 실행하지 않는 이유로 행위를 지속할 만큼 충분한 동기가 유발되지 않았음을 들고 있다. 따라서 행위의 실행을 위한 선행요인으로 전이동기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즉 교육의 결과는 학습에 대한 전이동기를 의미한다(Holton, 1996). 간호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이나 임상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교육을 통하여 새롭게 알게 된 지식이나 기술이 있다면 결국 이것을 변화되는 임상현장에 적용하거나 실행해보고자 하는 동기인 전이동기가 형성되어야만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바람직한 교육의 결과인 전이동기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학습동기를 증진시켜야만 한다(Ayres, 2005). 학습동기를 증진시키는 전략으로 다양한 교육 방법이 활용되는데, 최근에는 시뮬레이션 학습방법이나 문제중심학습(Problem-based

learning) 방법이 자주 사용된다. 이러한 학습방법은 학습자의 흥미를 유도하고,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학습자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시킨다(Becker et al., 2006). 특히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실습교육은 전통적인 실습교육방법보다 간호 수행능력, 자기주도 학습 능력 및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Eom, Kim, Kim, & Seong, 2010)으로 최근 간호실습교육에서 활용도가 높다. 또한 시뮬레이션 학습방법은 위협적이지 않는 환경에서 실무 기술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DeBourgh & Prion, 2011).

따라서 임상에 기반을 둔 시뮬레이션 학습방법은 간호대학생들이 자유롭고 편안한 환경에서 정신간호 실무에 대한 불안을 감소시켜 학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시뮬레이션 실습교육이 이렇듯 효과적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신간호학 분야에서는 매우 드물게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정신간호영역에서는 통합적으로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는 표준화된 마네킹(manikin)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Brown, 2008).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신간호학 분야에서는 최근 보다 더 실제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표준화 환자(standardized patient)를 활용하여 실습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간호학 분야에서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실습교육은 임상상황과 비슷한 상황에서 대상자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고, 또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간호학생들의 임상현장 적응력과 순발력을 높일 수 있다. 또한 표준화 환자를 사용하는 것은 실제 환자들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정신간호학 실습에서 표준화 환자의 사용은 실무에서 직면하게 되는 많은 환자들의 대안으로 가장 좋은 학습방법이라 할 수 있다(Kurz, Mahoney, Martin-Plank, & Lidicker, 2009).

이에 국외 정신간호학 분야에서는 표준화 환자를 이용한 정신간호학 실습교육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Bennett, Arnold, & Welge, 2006; Kurz et al., 2009; Shawler, 2008)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장점으로 표준화 환자를 통해 간호학생들의 대상자와의 상호작용이 증진되어 궁극적으로 치료적 의사소통이 효과적이고 실제적으로 이루어짐을 보고하였다. 잘 훈련된 표준화 환자의 일관된 역할 수행과 피드백을 통해 더 많은 것을 학습할 수 있게 된다(Nestel et al., 2010). 즉 표준화 환자를 통해 정서적 반응을 교류하고, 실제 정신과 임상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새롭게 구성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또한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정신간호학 실습교육은 학습

자들의 건강문제 사정 기술증진과 더불어 안전한 상황에서 간호수행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됨을 확인하였다(Richardson, Resick, Leonardo, & Pearsall, 2009). 따라서 간호학생들이 임상현장에 적용 가능한 정신간호술기와 더불어 학습능력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돕는 표준화 환자를 활용하는 교육방법은 매우 의미가 있다.

표준화 환자의 활용과 같은 시뮬레이션 실습교육은 임상상황을 재현하는 환경을 구축하고 임상과 유사한 상황에서 간호학생들로 하여금 실습에 임하도록 교육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향후 임상 현장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실습교육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학업성취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습자기효능감과 학습만족도를 활용할 수 있다. 학습자기효능감은 학습자의 학업성취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가장 큰 요소로 학업과 관련된 과제의 성공적 수행에 대한 신념 혹은 확신이며, 학습자의 지식을 실질적 수행으로 이끌 수 있는 중요한 매개변수이다(Bong, 1998). 즉 학습자가 새로운 상황에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원동력이 된다. 학습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들은 인지적 몰입을 더 자주 경험하고, 효과적인 과제 전략을 사용하며, 학습을 효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긍정적 학업 성과를 촉진한다(Pintrich & Schrauben, 1992). 따라서 학습자기효능감은 학습자들이 자신의 행동을 선택하고 노력의 투입을 결정하여 학습과정에 참여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자기조절학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연구되고 있다. 학습만족도 역시 지식 습득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이는 학습자 자신이 학습하는 내용에 대해 만족할 때 학습 내용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효과적인 학습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이다. Keller (1993)는 학습자 자신이 노력한 결과가 자신의 기대에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만족도가 결정된다고 하였으며, 이에 학습만족도는 교육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변수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yres (2005)의 학습전이 모형을 근거로 표준화 환자를 이용한 정신간호학 실습교육이 간호대학생의 학습자기효능감, 학습만족도 및 전이동기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는 향후 학생들의 실무역량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신간호학 실습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표준화 환자를 이용한 정신간호학 실습교육이 간

호대학생들의 전이동기, 학습자기효능감 및 학습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적을 갖고 있다.

-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정신간호학 실습 관련 특성을 파악한다.
- 표준화 환자를 이용한 정신간호학 실습교육을 받은 실험군과 받지 않은 대조군 사이에 전이동기의 사전-사후 차이값을 비교한다.
- 표준화 환자를 이용한 정신간호학 실습교육을 받은 실험군과 받지 않은 대조군 사이에 학습자기효능감의 사전-사후 차이값을 비교한다.
- 표준화 환자를 이용한 정신간호학 실습교육을 받은 실험군의 학습만족도 정도를 파악한다.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표준화 환자를 이용한 정신간호학 실습교육이 간호대학생의 전이동기, 학습자기효능감 및 학습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를 이용한 유사실험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11년 10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G시 소재 4년제 종합대학 간호학과에서 학과장 승인을 통하여 이뤄졌다. 연구대상자 선정은 간호학에 대한 통합적 사고능력과 정신간호술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하므로 정신간호학 이론 및 실습 교육을 모두 마친 4학년 학생으로 이전에 표준화 환자 또는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정신간호학 실습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자로 하였다. 또한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이에 참여하기를 서면으로 수락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될 것이며, 자료분석을 위한 자료저장은 연구자 개인용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지정한 후 사용하며, 또한 연구목적으로만 자료를 사용할 것임을 명시하는 서면동의서에 서명을 받아 진행하였다. Microsoft Office Excel 2007에 무작위로 배치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한 후 홀수와 짝수를 나누어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할당하였다.

대상자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G*Power 3.1.2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효과크기 d 는 .80, 유의수준 α 는 .05, 검정력($1-\beta$)

은 .80을 기준으로 하여 독립 t-test에 필요한 표본수를 분석한 결과 하나의 집단에 필요한 최소 표본수는 21명으로 전체 42명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탈락자를 감안하여 50명(실험군 25명, 대조군 25명)을 배정하였다.

자료수집방법은 연구자가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한 후,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 연구자와 연구 보조원이 실험군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는 표준화 환자를 적용한 정신간호학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대조군은 실험군의 프로그램이 끝난 후 사후 설문지 작성 후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한 사전 조사는 표준화 환자를 이용한 정신간호학 실습교육 실시 1주일 전에 실험군과 대조군에게 각각 실시하였고, 자살시도 경험이 있는 우울증 환자 사례로 표준화 환자를 이용한 실습교육을 적용한 실험군과 그렇지 않은 대조군에게 동일한 시점에 사후 조사를 실시하였다. 사후 조사가 끝난 다음 날부터 대조군에게도 실험군과 같은 내용의 실습교육을 제공하였다.

자료분석은 사전·사후 검사지를 불성실하게 작성하거나 완성하지 못한 실험군 2명, 대조군 4명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총 44명(실험군 23명, 대조군 21명)이 포함되었다.

3. 연구도구

1) 전이동기

전이동기는 새로운 학습방법으로 얻게 된 지식 및 기술을 임상현장 실무에 적용할 의도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Ayres, 2005)으로 본 연구에서는 Ayres (2005)가 개발한 도구를 본 연구 교육내용에 맞도록 변안하여 사용하였다. 정신간호학 교수 2인과 정신보건간호사 1인에게 원문 번역의 적절성과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았으며, 항목별 내용타당도지수(Content Validity Index, CVI)는 0.8~1.0이었다. 이 척도는 총 10문항으로 이루어진 Likert식 7점 척도로 총점의 범위는 7점에서 7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전이동기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0$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 .94$ 였다.

2) 학습자기효능감

학습자기효능감은 새롭게 학습한 내용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개인의 신념을 의미하며(Ayres, 2005), 본 연구에서는 Ayres (2005)가 개발한 도구를 본 연구 내용에 맞도록 변안하여 사용하였다. 정신간호학 교수 2인과 정신보건간호사

1인에게 원문 번역의 적절성과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았으며, 항목별 CVI는 0.8~1.0이었다. 이 척도는 총 10문항으로 이루어진 Likert식 7점 척도로 총점의 범위는 10점에서 7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4$ 였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 .95$ 였다.

3) 학습만족도

학습만족도는 학생들이 지각하고 있는 배움에 대한 욕구충족 정도, 즉 학습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학습내용이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 정도를 의미하며(Jeffries, 2007), 본 연구에서는 Jeffries (2007)가 사용한 도구를 본 연구에 적합하도록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정신간호학 교수 2인과 정신보건간호사 1인에게 원문 번역의 적절성과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았으며, 항목별 CVI는 0.7~1.0이었다. 이 척도는 총 8문항으로 이루어진 Likert식 5점 척도로 총점의 범위는 8점에서 4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4$ 였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 .88$ 이었다.

4. 연구절차

1) 연구팀 구성 및 사례 개발

2011년 6월부터 7월까지 정신간호 관련 사례를 개발하기 위해 연구팀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팀은 사례개발을 위해 첫째, 질환에 대한 이해와 전형적인 사례에 대한 개념 분석을 위해 문헌고찰을 하였다. 둘째, J정신과병원에 방문하여 수간호사, 주임간호사 및 정신과 전공의로부터 전형적인 환자에 대해 상담하고 사례를 추천받았다. 셋째, 정신간호학 교수 2인과 해당 전공분야 대학원생 2인이 추천받은 사례를 분석하여 개발 사례 초안을 작성하였다. 넷째, 초안 작성 후 두 차례의 추가 모임을 통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상황을 적절하게 수정하고 보완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자살시도를 경험한 우울증 환자 사례로 확정하였다.

2) 표준화 환자 훈련

2011년 8월 개발된 사례를 실제 상황처럼 연기할 수 있는 표준화 환자를 선발하기 위해 광주전남지부 사이코드라마협회 소속 회원 중 정신과에 관심이 있으며, 지난 1년 동안 표준화 환자 역할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로 최종 2인을 확정하였다. 표준화 환자 훈련은 Wallace (2007)의 표준화 환자 코칭

에 관한 내용을 토대로 실시하였다. 2011년 8월 15일부터 9월 8일까지 표준화 환자 훈련을 진행하였으며,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은 1시간 동안 그리고 각 연습 세션은 2시간씩 2회로 총 5시간이 소요되었다. 주요 교육내용에는 자살시도 경험에 있는 우울증 환자의 신체적·정서적 특성을 모든 학생에게 일관되고 동일하게 반응해야 하는 표준화된 역할의 필요성과 정확성, 비밀보장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주지시켰다. 또한 해당 사례의 시나리오 내용의 흐름을 숙지한 후 연기 연습을 지도하였다. 연구자는 표준화 환자를 상대로 학생역할을 하면서 표준화 환자들이 연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표준화 환자들끼리 서로의 연기를 관찰하게 함으로써 표준화 환자 역할에 대한 시나리오를 수정·보완하였다. 마지막으로 최종 리허설을 하고, 실제 상황과 똑 같아졌는지 점검하는 모의시험을 실시하여 표준화하였다.

3) 동영상 촬영자 교육

연구팀은 2개의 스테이션 각각에 정신간호학 전공 대학원생을 촬영자로 배정하기 위해 2명을 선발하여 평가기준을 미리 점검시키고, 평가항목별 채점을 위해 촬영에 유의해야 할 사항을 교육하였다. 최종 리허설 시 시범촬영을 한 후, 평가자가 평가할 수 없는 상황이 유발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촬영해야 하는 장면과 줌업을 해야 하는 상황, 촬영 이외에 학생들이 문제해결을 하는데 실마리가 되는 어떠한 힌트도 주지 말 것 등의 촬영지침을 재교육하였다.

4) 평가자 훈련

평가자 훈련은 표준화 환자 2명과 교수 2인으로 구성된 총 4명의 채점자를 대상으로 1시간씩 평가자 훈련을 실시하였다. 평가자의 교육은 최종 모의 평가를 포함하여 총 3회기를 통해 실시하였다. 첫 회기는 시나리오와 평가기준표를 점검하였다. 두 번째 회기는 연구팀 중 1인이 모의학생의 역할을 담당하여 모의시험 상황을 시연할 때, 2인의 평가자에게 같은 모의 상황을 동시에 개별적으로 평가하도록 하여 평가자 간 일관성과 객관적인 평가를 얻었는지 등을 검토하여 평가기준표를 수정·보완하였다. 세 번째 회기에는 최종 평가기준표에 근거하여 모의평가를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평가자와 함께 최종점검을 하고 평가하기 어려운 장면에 대한 논의를 하고 이를 정리한 후, 평가자 훈련을 마무리하였다.

5) 실험처치

연구대상 학생들에게 수업 시작 후 30분 동안 표준화 환자

를 이용한 정신간호학 실습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를 실시한 후 50분 동안 정신간호 사례적용 이론 학습을 실시하였다. 10분 동안 휴식시간을 갖도록 한 후, 학생들에게 표준화 환자에 대한 상황소개 및 지침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숙지할 수 있도록 설명서를 제시하였다. 학생들을 5~6명씩 한 조를 이루게 하여, 개인별로 1인의 표준화 환자와 1인의 참여교수가 배치해 있는 정신간호학실습실에서 10분씩 표준화 환자를 대상으로 간호 사정과 중재를 실시하였다. 표준화 환자는 훈련받은 대로 실제 임상에서의 유사하게 환자의 역할을 재연하였다. 간호대학생들이 표준화 환자를 사정하는 동안 참여교수와 표준화 환자가 각각 간호수행능력과 태도를 평가하였다. 각 조 별로 50~60분 동안 표준화 환자를 이용한 실습교육이 진행되었고, 이후 디브리핑을 30분 정도 실시하였다. 이 때 각각의 학생들에게 참여교수와 표준화 환자가 피드백을 주었으며, 또한 학생들 상호간에 의견을 주고받도록 진행하였다. 복도에서 연구진행보조요원이 실험 참여자와 종료자 간에 상호의견교환을 방지하기 위해 출입구와 대기실을 관리하였다. 실습이 끝난 학생들은 준비하는 학생들과 차단된 대기실에서 전이동기, 학습자기효능감과 학습만족도에 대한 설문지를 받아 설문지에 자가 응답하였다.

5.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SPSS/WIN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두 집단의 주요변수에 대한 정규분포 여부를 Kolmogorov-Smirnov test를 통하여 검정한 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정은 χ^2 -test와 Fisher's exact test로, 주요변수에 대한 동질성 검정은 t-test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전이동기, 학습자기효능감 및 학습만족도 정도는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 표준화 환자를 적용한 정신간호학 실습교육 실시 후 전이동기 및 학습자기효능감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사후 차이값에 대한 t-test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의 동질성 검정

연구대상자는 총 44명으로 실험군 23명, 대조군 21명이었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전 동질성 검정 결과 두 군 간의 차이

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구체적인 항목을 살펴보면, 성별은 여성이 41명(93.2%), 남성이 3명(6.8%)이었고, 연령은 20~23세가 38명(86.4%), 24~26세가 6명(13.6%)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무'가 23명(52.3%), '유'가 21명(47.7%)이었고, 학업성취도는 '중'이 31명(70.5%), '상'이 9명(20.5%), '하'가 4명(9.1%)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전공 선택 동기는 '권유'가 19명(43.2%), '성적'이 14명(31.8%), '적성'이 6명(13.6%), '동경'이 5명(11.4%)이었고, 사회적 전공 선택 동기는 '취업'이 27명(61.4%), '직업적 안정'이 13명(29.5%), '봉사'가 4명(9.1%)으로 나타났다. 전공 만족도는 '만족'이 40명(90.9%), '불만족'이 4명(9.1%)이었다. 정신과 근무 희망은 '원함'이 28명(63.6%), '원하지

않음'이 16명(36.4%)이었고, 정신과 간호사 역할에 대한 인식은 '알고 있음'이 37명(84.1%), '모름'이 7명(15.9%)으로 나타났다. 정신과 실습 병원은 '입원 병동'이 23명(52.3%),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는 21명(47.7%)이었고, '정신과 실습 만족도'는 '만족'이 40명(90.9%), '불만족'이 4명(9.1%)으로 분석되었다.

2. 종속변수에 대한 동질성 검정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전 전이동기($t=-0.50$, $p=.619$), 학습자기효능감($t=0.81$, $p=.424$)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2).

Table 1. Homogeneity of General Characteristics

(N=44)

Characteristics	Categories	Exp. (n=23) n (%)	Cont. (n=21) n (%)	Total (n=44) n (%)	χ^2	p
Gender	Male	2 (91.3)	1 (4.8)	3 (6.8)	2.94	.234 [†]
	Female	21 (8.7)	20 (95.2)	41 (93.2)		
Age (year)	20~23	19 (82.4)	19 (90.5)	38 (86.4)	0.58	.666 [†]
	24~26	4 (17.4)	2 (9.5)	6 (13.6)		
Religion	Have	10 (43.5)	11 (52.4)	21 (47.7)	0.35	.763 [†]
	Have not	13 (56.5)	10 (47.6)	23 (52.3)		
Academic performance	Higher	3 (13.0)	6 (28.6)	9 (20.5)	3.50	.174
	Medium	19 (82.6)	12 (57.1)	31 (70.5)		
	Lower	1 (4.3)	3 (14.3)	4 (9.1)		
Choice motives of major (personnel aspect)	Aptitude	4 (17.4)	2 (9.5)	6 (13.6)	0.83	.843
	Grade	7 (30.4)	7 (33.3)	14 (31.8)		
	Suggestion	10 (43.5)	9 (42.9)	19 (43.2)		
	Yearn	2 (8.7)	3 (14.3)	5 (11.4)		
Choice motives of major (social aspect)	Volunteering	2 (8.7)	2 (9.5)	4 (9.1)	0.02	.989
	Job stability	7 (30.4)	6 (28.6)	13 (29.5)		
	Employment	14 (60.9)	13 (61.9)	27 (61.4)		
Satisfaction of major	Satisfaction	22 (95.7)	18 (85.7)	40 (90.9)	1.31	.335 [†]
	Dissatisfaction	1 (4.3)	3 (14.3)	4 (9.1)		
Hoping to work on a psychiatric nursing field	Yes	18 (78.3)	10 (47.6)	28 (63.6)	4.45	.059 [†]
	No	5 (21.7)	11 (52.4)	16 (36.4)		
Understanding of psychiatric nurses' role	Yes	20 (87.0)	17 (81.0)	37 (84.1)	0.27	.693 [†]
	No	3 (13.0)	4 (19.0)	7 (15.9)		
Setting	Inpatient	13 (56.5)	10 (47.6)	23 (52.3)	0.35	.763
	Outpatient	10 (43.5)	11 (52.4)	21 (47.7)		
Satisfaction of practice	Satisfies	21 (91.3)	19 (90.5)	40 (90.9)	0.01	1.000 [†]
	Dissatisfaction	2 (8.7)	2 (9.5)	4 (9.1)		

Exp. =experimental group; Cont. =control group.

[†] Fisher exact test.

Table 2. Homogeneity of Dependent Variables between Two Groups in Pretest

(N=44)

Variables	Exp. (n=23)	Cont. (n=21)	t	p
	M±SD	M±SD		
Motivation to transfer	47.7±8.60	49.1±9.85	-0.50	.619
Self-efficacy in learning	54.2±7.45	52.4±7.64	0.81	.424

Exp. =experimental group; Cont. =control group.

Table 3. Difference of Dependent Variables between Two Groups according to Treatment

(N=44)

Variables	Groups	Pretest	Posttest	Difference	t	p
		M±SD	M±SD	M±SD		
Motivation to transfer	Exp. (n=23)	47.7 (8.60)	54.7 (9.40)	-7.1 (9.51)	-2.49	.017
	Cont. (n=21)	49.1 (9.85)	49.8 (9.74)	-0.8 (6.97)		
Self-efficacy in learning	Exp. (n=23)	54.2 (7.45)	60.0 (6.38)	-5.8 (8.69)	-3.77	. < .001
	Cont. (n=21)	52.4 (7.64)	50.1 (7.60)	2.3 (4.70)		

Exp. =experimental group; Cont. =control group.

3. 종속변수의 중재 후 차이 검정

사전-사후 차이값 검정에서 전이동기는 실험군 사전 47.7점에서 사후 54.7점으로 차이값 -7.1점, 대조군 사전 49.1점에서 49.8점으로 차이값 -0.8점으로 통계적으로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t=-2.49$, $p=.017$)가 있었으며, 학습자기효능감도 실험군 사전 54.2점에서 사후 60.0점으로 차이값 -5.8점, 대조군은 사전 52.4점에서 사후 50.1점으로 차이값 2.3점으로 통계적으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t=-3.77$,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4. 중재 후 학습만족도 정도

실험군의 학습만족도 점수는 Table 4와 같이 4.3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습만족도의 평균평점을 분석한 결과 “정신간호 학습에 효과적이다”라는 문항이 4.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간호 사정 능력이 증진되었다”는 4.5점으로 높게 나왔으나 “자신의 학습방법과 일치한다”는 문항은 3.8점으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Table 4. Mean Score of Learning Satisfaction after Treatment on Experimental Group

(N=23)

Variable	M±SD
Learning Satisfaction	4.3±0.44
1. Enhancement of effective learning	4.6±0.50
2. Enhancement of nursing assessment	4.5±0.59
3. Enhancement of learning satisfaction	4.4±0.57
4. Enhancement of learning motivation	4.4±0.57
5. Enhancement of active learning	4.4±0.57
6. Enhancement of understanding of major depression	4.4±0.57
7. Providing assistance of RN examination	4.2±0.67
8. Agreement about own's learning methods	3.8±0.73

호대학생들이 직업 선택 시 정신간호영역을 선호하도록 돕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임상실습교육 동안의 긍정적 경험이다(Happell & Hayman-White, 2009). 그러나 실제 다른 실습영역보다 정신간호학 실습과정 동안 간호대학생들은 불안, 두려움, 부정적 태도와 같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Tully, 2004). 최근 이러한 부정적 경험을 감소시키고 학습된 지식과 기술을 적용해 보도록 정신간호학 영역에서도 다양한 교육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정신과 임상실무와 가장 유사한 교육방법이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실습교육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표준화 환자를 이용한 정신간호학 실습교육이

논 의

최근 급변하는 사회와 경쟁체제 안에서 현대인들의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고 이를 계기로 전문적이고 우수한 정신간호사의 양성과 배출이 요구되고 있다. 간

간호대학생에게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시도되었으며, 연구결과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결과 표준화 환자를 이용한 정신간호학 실습 교육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전이동기 점수의 사전-사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즉 표준화 환자를 이용한 정신간호학 실습교육이 간호대학생의 학습된 지식 및 기술을 실무에 적용하고자 하는 동기를 증진시키는 데 효과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Oh (2008)의 연구에서도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의사소통능력증진 프로그램 적용 후 전이동기가 증가하여 대조군과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 프로그램은 본 연구와 유사한 교육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주로 상황극과 표준화 환자를 활용하여 학습자의 의사소통능력을 평가하고 수정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처럼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실습교육은 전이동기의 매개요인인 학습동기를 극대화시키므로 효과적인 교수학습전략으로 사용될 수 있다(Oh, 2008). 실습교육의 성과는 전이동기로 평가할 수 있는데, 전이동기가 증진된 경우 학습자는 학습내용을 행동으로 실천하고 또한 지속성을 갖기 때문이다(Ayres, 2005; Hutchins & Burke, 2007). 이러한 전이동기는 학습과 행동변화 간의 관계를 조절(Noe, 2008)하기 때문에 전이동기가 높을 때 학습을 통한 행동변화가 촉진된다(Liebermann & Hoffmann, 2008). 본 연구에서처럼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정신간호학 실습교육은 전이동기를 증진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보다 효과적인 학습 결과가 나타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즉 표준화 환자를 이용한 학습방법은 지식획득을 풍부하게 만들고(Nestel et al., 2010), 임상과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 실제 많은 선행연구들(Becker et al., 2006; Kelley, Kopac, & Rosselli, 2007; Rutledge, Garzon, Scott, & Karłowicz, 2004)에서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실습교육이 의사소통기술 및 간호 사정과 중재 기술을 증진시킨다는 결과를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표준화 환자를 이용한 교육이 최근 들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Jeffries, 2007).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향후 정신간호학 분야에서는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다양한 실습교육 모듈을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본 연구결과 표준화 환자를 이용한 정신간호학 실습 교육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학습자기효능감 점수의 사전-사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Luctkar-Flude, Wilson-Keates와 Larocque (2011)의 연구에서는 표준화 환자를 이용한 학습방법이 다른 시뮬레

이션 교육을 받는 것보다 학습자기효능감을 더 높이는 방법으로 매우 유의한 학습방법임을 제시하였다. 실습교육에서 학습자기효능감은 특히 임상실무수행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학습자기효능감은 불안과 부적 상관성을 갖고 있어 학습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들은 불안하지 않은 편안한 상태에서 실습에 임하므로 실습교육의 효과성을 더 높여준다(Bong, 1998). 실제 Bonaccio와 Reeve (2008)은 학습자기효능감이 실무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즉 학습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습자들이 편안한 환경 속에서 인지적 능력이 더 자유롭게 발휘되어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분류하기 때문에 더 높은 업무수행능력을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실습교육은 간호대학생들이 정신간호학 실습 동안 경험하게 되는 불안을 조절하여 자신의 실무 역량을 편안하게 발휘하도록 돕는 학습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 학습방법임을 확인하였다.

셋째, 본 연구결과 표준화 환자를 이용한 정신간호학 실습 교육에 대한 실험군의 학습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즉 표준화 환자를 이용한 실험군의 평균점수가 5.0점 만점에서 4.3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표준화 환자를 이용한 정신간호학 실습교육이 간호대학생들의 학습만족도에 효과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Nestel 등(2010)의 연구에서도 표준화 환자를 이용한 실습교육이 기존의 실습교육에 비해 보다 큰 학습만족감을 제공함을 보고하였다. 교육학적 측면에서 교육심리학자들은 학생들의 학습만족감이 학습에 대한 확신이나 자기효능감을 증진시켜 학생들이 자신이 학습해야 할 지식과 기술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교육과정 동안 학생들이 스스로 긍정적 학습경험과 만족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표준화 환자를 이용한 정신간호학 실습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이 특히 자신의 학습에 효과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항목에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간호사정 능력, 학습에 대한 동기 부여, 그리고 주요우울장애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었음을 보고하였다. 이는 Robinson-Smith, Bradley와 Meakim (2009)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부분으로 표준화 환자를 이용한 학습방법이 자신들의 학습에 대한 동기를 촉진하였고, 참여하는 것 자체가 즐겁고 긍정적인 경험으로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이 연구를 통하여 학생들은 실제로 대상자를 사정하는 임상적 기술에 대한 자신감을 획득했으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은 정서, 기억, 인지적 문제를 지닌 대상자들과의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의사소통기술 그리고 대상자로부터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경청하는 태도가 증진되었음

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이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정신간호학 실습교육 중 가장 어려워했던 점은 자해 가능성이나 정신병적 증상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었으며, 또한 면담의 요약이나 정보제공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Nestel 등(2010)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간호대학생들이 사전에 사정내용을 준비했다고 할지라도, 표준화 환자와 면담 시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나아가 학생들은 지나치게 업무나 중재내용에 집중하다보니 대상자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빠뜨리거나 정서적 반응을 보여주지 못했으며, 단지 자신들이 정한 매뉴얼대로만 대상자와 면담하느라 주요 사정도구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디브리핑 동안 실습교육과정 중에 경험했던 어려움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미처 자신이 인식하지 못했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표준화 환자를 이용한 정신간호 실습교육이 만족스러웠음을 보고하였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정신간호학 실습교육에 있어서 표준화 환자를 이용한 교육방법은 간호대학생들이 정신간호학 실습시 경험하게 되는 불안이나 어려움을 극복하고 실제 학습된 내용을 임상실무에 적용하고자 하는 전이동기를 증진시키고, 또한 정신간호학 학습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만족감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변화 발전하는 정신보건의료영역에서 간호대학생들이 향후 임상에 보다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임상과 관련성이 높고, 주의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방법, 그리고 자신감과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개발하고 이를 표준화 환자를 이용한 정신간호학 실습교육에 효과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수행 시 연구대상자를 선택함에 있어 전국 단위의 간호대학생이 아닌 특정 도시에 한정된 일 개 대학 학생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확대 해석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아직까지 표준화 환자를 이용한 정신간호학 실습교육의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가 없어 본 연구결과의 확대 적용을 위하여 비슷한 조건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반복연구가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향후 다양한 사례를 개발하여 표준화 환자를 적용한 반복연구를 실시하여 그 효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표준화 환자를 이용한 실습교육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관련변수들, 즉 개인적 요인 및 사회적 요인 등의 다양한 변인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와 장기적인 효과를 측정하는 추적연구를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

본 연구는 표준화 환자를 이용한 정신간호학 실습교육을 간호대학생에게 적용한 후 전이동기, 학습자기효능감, 학습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여 향후 정신간호학 실습에 있어서 임상에 기반을 둔 시뮬레이션 학습방법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표준화 환자를 이용한 정신간호학 실습교육은 간호대학생의 전이동기, 학습자기효능감, 그리고 학습만족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정신간호학 실습교육은 임상상황과 비슷한 환경에서 실제 환자와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되며 이로써 간호학생들의 임상현장 적응력을 높이고 학습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만족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학습방법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향후 정신간호학 실습교육에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다양한 정신간호학 표준화 환자 사례를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 Ayres, H. W. (2005). *Factors related to motivation to learn and motivation to transfer learning in a nursing popul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Raleigh, USA.
- Becker, K. L., Rose, L. E., Berg, J. B., Park, H., & Shatzer, J. H. (2006). The effectiveness of standardized patients.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45, 103-111.
- Bennett, A. J., Arnold, L. M., & Welge, J. A. (2006). Use of standardized patients during a psychiatry clerkship. *Academic Psychiatry*, 30, 185-190.
- Bonaccio, S., & Reeve, C. L. (2008). Does test anxiety induce measurement bias in cognitive ability tests? A measurement invariance analysis. *Intelligence*, 36, 526-538.
- Bong, M. (1998). Tests of the internal/external frames of reference model with subject-specific academic self-efficacy and frame-specific academic self-concept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0, 102-110.
- Brown, J. (2008). Applications of simulation technology in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education. *Journal of Psychiatric & Mental Health Nursing*, 15, 638-644.
- Chung, M. S. (2009). The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practical performance, practical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8, 60-68.

- DeBourgh, G., & Prion, S. (2011). Using simulation to teach pre-licensure nursing students to minimize patient risk and harm. *Clinical Simulation in Nursing*, 7(2), 47-56.
- Eom, M. R., Kim, H. S., Kim, E. K., & Seong, K. Y. (2010). Effects of teaching method using standardized patients on nursing competence in subcutaneous injection,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and problem solving ability.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40, 151-160.
- Happell, B., & Hayman-White, K. (2009). Nursing students' attitudes to mental health nursing: Psychometric properties of a self-report scale. *Archives of Psychiatric Nursing*, 23, 376-386.
- Holton, E. F. III. (1996). The flawed four-level evaluation model. *Human Resource Development Quarterly*, 7, 5-21.
- Hutchins, H. M., & Burke, L. A. (2007). Identifying trainers' knowledge of training transfer research findings: Closing the gap between research and practice. *International Journal of Training and Development*, 11, 236-264.
- Hyun, M. S., & Seo, M. A. (2000). Clinical practicum experiences of the nursing students' in psychiatric setting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9, 44-53.
- Jeffries, P. (2007). *Simulation in nursing education*. New York: National League for Nursing.
- Kameg, K., Howard, V. M., Clochesy, J., Mitchell, A., & Suresky, J. (2010). The impact of high fidelity human simulation on self-efficacy of communication skills. *Issues in Mental Health Nursing*, 31, 315-323.
- Keller, J. M. (1993). *Motivation by design*. Tallahassee, FL: John Keller Associates.
- Kelley, F. J., Kopac, C. A., & Rosselli, J. (2007). Advanced health assessment in nurse practitioner programs: Follow-up study. *Journal of Professional Nursing*, 23, 137-143.
- Kurz, J., Mahoney, K., Martin-Plank, L., & Lidicker, J. (2009). 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and advanced practic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Professional Nursing*, 25, 186-191.
- Liebermann, S., & Hoffmann, S. (2008). The impact of practical relevance on training transfer: Evidence from a service quality training program for German bank clerks. *International Journal of Training and Development*, 12, 74-86.
- Luctkar-Flude, M., Wilson-Keates, B., & Larocque, M. (in press). *Evaluating high-fidelity human simulators and standardized patients in an undergraduate nursing health assessment course*. Nurse Education Today.
- Nestel, D., Clark, S., Tabak, D., Ashwell, V., Muir, E., Paraskevas, P., et al. (2010). Defining responsibilities of simulated patients in medical education. *Simulation in Healthcare*, 5, 161-168.
- Noe, R. A. (2008). *Employee Training & Development* (4th ed.). New York: McGraw-Hill.
- Oh, Y. J. (2008). *Development and effectiveness of the communication empowerment program for nursing students: Based on the theory of transfer of learn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Seoul.
- Pintrich, P. R., & Schrauben, B. (1992). Student's motivational beliefs and their cognitive engagement tasks. In D. Schunk & I. Meece (Eds.), *Students perceptions in the classroom: Causes and consequences* (pp. 149-183).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Richardson, L., Resick, L., Leonardo, M., & Pearsall, C. (2009). Undergraduate students as standardized patients to assess advanced practice nursing student competencies. *Nurse Educator*, 34, 12-16.
- Robinson-Smith, G., Bradley, P. K., & Meakim, C. (2009). Evaluating the use of standardized patients in undergraduate psychiatric nursing experiences. *Clinical Simulation in Nursing*, 5, 203-211.
- Rutledge, C. M., Garzon, L., Scott, M., & Karlowicz, K. (2004). Using standardized patients to teach and evaluate nurse practitioner students on cultural competency.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Scholarship*, 1, 1-16.
- Shawler, C. (2008). Standardized patients: A creative teaching strategy for psychiatric-mental health nurse practitioner students.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47, 528-531.
- Tully, A. (2004). Stress, sources of stress and ways of coping among psychiatric nursing students. *Journal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11, 43-47.
- Wallace, P. (2007). *Coaching standardized patients: For use in the assessment of clinical competence*. New York: Springer.